

'산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발간합니다.

산 들

| 퍼낸이,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6

“더워드마운틴”

2016년 가족모임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3년 간 스토리와 캐릭터로 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 속의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즐기는 역할 수행게임인 ‘RPG’(롤플레이어 게임) 형식의 스토리로 살고 있다.

올해는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무기 3종, 방어구 3종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돕는 모든 물건인 ‘아이템’ 형식의 스티커도 획득할 수 있다. 그 스티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 호흡기도 = 스티커 1개’ 등의 기준을 따라 워크북의 각 항목과 1주기 ‘더워드마운틴’ 이벤트의 각 항목마다 정한 표준규칙에 맞게 살아야 한다. 우선 1주기는 표준규칙 대로 살다가 익숙해지면 가족모임 별로, 또한 강조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대로 게임을 진행해야 재미있듯이 규칙대로 살아야 재미있는 삶을 즐길 수 있다.

처음이다 보니 항목도 많은데 항목마다 스티커 수도 다양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참 단순하다. 매일기도와 호흡기도,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사랑하라’는 뜻임을 깨달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사랑을 실천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된다.

특히, 올해는 내 옆의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잘 하는 것을 소원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올해의 캠페인을 잘 이해하고 섬김과 격려 주간의 섬김자로 모든 가족들과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권면까지 했는데, 아이টে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난 가족들을 판단하고 기분 나빠하다가 잘못을 하고도 가족 탓을 하며 어리석게 굴었다. 그때의 나에겐 사랑이라고는 눈썹만큼도 없었음을 고백한다. 그 날 획득한 스티커를 다 회수한다 해도 할 말이 없다. 그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뿐이며 용서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더워드마운틴’에 머무는 동안 “판단하지 말라”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였으니, 말씀에 따라 워크북 내용을 충실히 행하고 곧 다가올 특별이벤트인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기도와 호흡기도, 사랑의 금식과 밤기도와 성경통독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또한 가족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잘 하는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겠다.





■ 저희가 1년의 첫 번째 달에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계획한 것은 마치 열심히 농사지어 첫 수확을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를 살 준비가 다 되었으니 2016년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는 아주 잘 알



려진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마7:13-14) 넓은 문이 다니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찾기도 힘들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이야기를 좁은 문 이야기와 같이 합니다. 아마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일 것입니다.

- 미가서 6 : 1 - 8
- 야고보서 1 : 16 - 27
- 마태복음서 7 : 13 - 23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길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이 있는 길을 의미하고, 넓은 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혹시 길이 없는 곳으로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초보일 때는 길이 없는 쪽으로 이따금씩 들어가는데 많이 못 가고 바로 견인차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길이 있는 곳으로 다니지 길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있는 길로 가는 것이지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저 한 1미터 정도 그 길을 닦고 죽고, 닦고 죽고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내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미 있는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님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는 길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니는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써놓았습니다.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인생이 정말 순도 99.9% 정도로 똑같은 길, 이미 놓여진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상상할 수 없는 소문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없는 길을 가면 방황하고, 헤매고, 사고가 나고, 잡아 먹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일반 방송매체에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영웅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치켜 올립니다. 그렇게 해 봤자 자기 인생은 99.9% 남들이 가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하며 살다가 까닭도 모르고 죽습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이야 오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형태를 살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누군가는 생각한 것이고, 누군가는 지나간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길로 다녀야 사람이 살만한지에 대해서 꾸준히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자고 하는 길은 말 그대로 살만한 길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길은 좋은 길이고 살만한 길인데 그것과 정반대의 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을 탐하는 길, 돈을 쫓아가는 길, 사람을 버리는 길은 걸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나 그 길은 멸망으로 다다른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나쁜 길은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길의 특징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10원을 투자하면 내가 매월 100원씩 주



겠다.’는 100% 나쁜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욕심에 취한 꿈에서 깰까 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도 조심스럽게 물니다.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는 철없는 물고기입니다. 미끼에 대한 연구와 낚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어린 것들이 주로 낚여 올라옵니다. 실제로 낚시를 하면 큰 물고기들은 잘 안 올라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산 경험이 많아서 덥석덥석 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 미끼나 덥석 물고 죽을까 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부모님 밑에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만 그 시절이 끝나면 금방 이런 미끼들이 그 앞에 나타나고, 먹으면 죽는 길이 수없이 많이 전개됩니다. 그것이 일명 넓은 길입니다. 사실 넓은 길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넓은 길의 특징은 너무 쉽고, 편하고, 자유롭게 보입니다. 저에게 쉽고, 편하고, 즐겁고, 내 멋대로 사는 길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시는 미끼는 전부 그렇습니다. 쉽고, 편하고, 즐겁고, 내 멋대로 하는 길 그것이 여러분이 드시는 미끼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길입니다. 그런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세상에서도 바보라고 합니다. ‘지혜가 떨어진다, 어리석다, 욕심 사납다’고 말합니다. 아직 어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길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이트도 존재하고, 이따금씩 책에도 나오니 그것이 미끼라는 것을 모르고 덥석 물고 싶어 합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공부는 안하고 재미있고, 쉽고, 편하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는 문은 없습니다. 모든 매체는 그런 길이 있는 것처럼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수없이 던집니다. 영화, 소설, 혹은 철학 책, 뉴스나 TV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사회구조가 마치 그런 길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현대판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런 길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런 길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미끼를 물겠습니까? 800만 명으로포를 합니다. 800만 명이 천 원씩 산다고 한다면 8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배당이 2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 나머지 60억 원은 어린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겠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어린 물고기들이 미끼를 향해 돌진하고, 이 미끼가 ‘금수저인가 보다’ 하며 덥석덥석 물고 죽습니다.

멀망으로 가는 길은 어떤 느낌이 드는 길인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쉽고, 편하고, 저절로 되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으면 내가 미끼를 문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경계를 삼으면 조금은 덜 어리석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귀가 솔깃하다고 하는데, ‘이쪽 길이 쉽고 편하고 네 멋대로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교언영색선의인’ 이라고 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너에게 어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선생님이나 부모까지도 그런 길이 있다고 미끼를 팔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을 똑바로 보면, 편한 길, 쉬운 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산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정상적인 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조금 어렵고, 조금 불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정상적인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 길로 안 가면 지금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막다른 길이거나 함정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사단이 나는 길입니다. 혹시 저랑 같이 다니면 쉽고, 편하고, 내 뜻대로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따라왔다면 지금까지 제 말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니는 길을 소개할 뿐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은 뜻대로 안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도 그 길을 다닙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길로 다녀야 사람이 살만한 지에 대해서 꾸준히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자고 하는 길은 말 그대로 살만한 길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길은 좋은 길이고 살만한 길인데 그것과 정반대의 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을 탐하는 길, 돈을 쫓아가는 길, 사람을 버리는 길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나 그 길은 멀망으로 다다르는 길입니다.



는 순간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20대라도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남들이 산 인생을 많이 관찰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바라보고 연구를 해서 그런 길은 안 갑니다. 그런 길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60이 넘어서 산전수전 다 겪고 결국 그런 길은 없나 보다 하고 급 좌절모드로 살아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나이 60에 지혜가 생기면 다행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뜻대로 되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약1:19) 야고보가 소개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들은 전부 삶의 길에서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길에 관해서는 똑같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길의 개척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웅적인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길을 닦게 될 때는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간 줄도 모르고 어찌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둘째, 여태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모두 다 남들이 가 본 길을 갑니다. 99.9%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커다랗게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의 특징은 굉장히 멋집니다. 알록달록한 독버섯처럼 좋아 보입니다. 말하자면 쉬워 보이고, 편

해 보이고, 내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도 성공할 것 같은 길입니다. 그런 길은 거의 100% 멸망의 길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불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길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이따금씩 산마루턱에서 잠시 쉬어가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는 길은 단순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빨리 들으시고 화를 적게 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빨리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말은 많이 하고, 듣기는 느리게 하고,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자주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따라 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잠시 인생의 산마루턱에서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길이 여러분 앞에 주구장창 펼쳐질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산마루턱에서 쉴 때 같이 친구 해주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할 때 들어주고 여러분들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고 열 받지 말고, 그 사람과 친구가 돼서 그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 모든 것은 망하는 길로 미끄러져가는 도중이거나 아니면 어렵게 얻은 산마루턱이거나 하는 부분만 극단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이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교연영색이 의롭지 않습니다. 모든 매체는 여러분들에게 멸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무 빨리 들

지 마시고, 내가 너무 쉽게 빨려 든다 싶으면, 위험하다고 자각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옆에서 ‘그 길은 너무 쉽고 너무 빨리 빠져드니 조심하라’고 하면 화 내지 말고 한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에서 좋은 길은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길을 잘 점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한 달 1년 동안 사랑하며 잘 살 것을 설계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나에게 기쁨이 되면 좋은 것이고, 점점 더 나에게 기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뜻대로 안 되는 인생길 가운데 사랑하는 길은 여러분에게 그나마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채워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유일한 생명길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개척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라고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사랑 최현숙: 섬김님 집에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돕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모란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진주님에게 선물하고 섬김님에게 축하문을 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뿌리님과 즐거운 사귀의 시간을 갖고,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초록님과 즐거운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진주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란 신은경: 생명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섬기는 기쁨과 격려의 말씀을 준비하여 늘빛님을 만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늘빛님을 도와 빈대떡을 준비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맑은님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늘빛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온유님에게 스토리관련자료 이메일을 발송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샤론님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늘빛님에게 성경 말씀으로 안부인사를 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달빛님에게 내가 읽은 말씀을 전하고, 반찬 선물을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모퉁이돌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여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아모님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달빛님을 좋아해서 아이들과 함께 먹을 것을 선물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해님과 믿음의 문자를 일주일에 3번 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말씀과 감사문을 새롬님에게 보내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가족들에게 감사와 격려문자를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소망님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드림님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미리내님에게 반찬선물을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문자를 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빌립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찬미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광야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좋은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빌립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광야님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푸른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불꽃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화음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신나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시원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한가온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등대님에게 안부와 감사문자를 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요한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희은님에게 물티슈를 선물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요한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현절 다섯째 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147편 1-11, 20절
소리내어 천천히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흠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 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첫 기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악마의 유혹을 이기시고, 성령
 으로 충만하여 희망 없는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세례
 안에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
 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
 여, 오늘 하루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희
 망 없는 세상에서 새 희망의 증인으로 사
 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데살로니가후서 요한서 마가복음
 1-3/1-3/4-5
 1-2/3-4/5-6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문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147편 1-11, 20절

소리내어 천천히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받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 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 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79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41)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수업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관문이다. 이 관문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은 요원하다. 즉,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헤매다 끝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편화시키는 영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성령은 ‘아들됨의 영’ 혹은 ‘아들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의 아들의 영’은 ‘사람의 영’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 이는 류적인 개념이다. ‘개의 아들’이 ‘개’이고, ‘고양이의 아들’이 ‘고양이’인 것이 류적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물론, ‘개의 아들의 아들’도 역시 ‘개’이고, ‘고양이의 아들의 아들’도 역시 ‘고양이’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류적으로는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다. 이 점에서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른 영이 아니라, 모두 같은 영, 곧 ‘성령’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천여 년간 기독교 내에서는, 예수님의 영을 특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예

수님의 영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오직 ‘예수님의 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 혹은 ‘아들의 영’은 예수님 개인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누린 첫 사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유일한 사례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 점에서 바울은 ‘아들의 영’을 예수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푸뉴마 크리스투)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롬 8:9)

로마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나란히 열거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같은 영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번역은 의역이다. 헬라어 사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것’은 문맥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 혹은 그

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에 더하여,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라고도 전한다.

로마서 8장의 한글 번역 성경은 개역이나, 새번역이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정시키는 관점을 가지고 번역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8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고유하고 유일한 특성이 부각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은 이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즉, ‘그리스도 철수’도 가능하고, ‘그리스도 영희’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예수’와 ‘철수’와 ‘영희’를 하나로 묶는 공통분모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로 산 첫 번째 사례인 것이고, 그를 따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로마서 1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

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주목한다.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죽을 몸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따라 사는 이들을 죽을 몸에서 살리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전한다. 그러나, 개역성경이나 새번역성경과 같은 한글번역 성경은 '그리스도'를 자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문을 다소 혼란스럽게 번역해 놓았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수여하거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주체로 소개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예수님'을 한정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확실히, 로마서 8장은 번역상 쉬운 문장들은 아니지만, 교리적 옷을 덧입힌 의역에 의해 난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로마서 자체의 맥락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번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 (휘오이 테우)입니다"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중요한 선언이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인 서신에 속하는데, 그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로마서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 혹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는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혈통이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들이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이들이 점점 불어나게 된다는 말이며, 이 땅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세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은, 로마서 8장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일은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전망을 담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존재이며, 이 땅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존재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의 자존감 안에는 실로 놀라운 전망이 담겨 있었고, 로마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는 어떠한 자존감과 전망이 담겨 있는가? 그것은 바울의 것과 동일한가?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자존감과 전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한 사건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는 사건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결코 주눅들거나 굴복할 수 없는 위대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사건이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

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무엇이 쫓이고, 무엇이 된 장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전한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롬12:2)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어조는 어떤 서신보다도 강경하고, 단호하다. 아마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각인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예루살렘에 모금한 것을 전하고 나서는,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예정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서신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을지, 얼마나 호의적으로 바울을 대했을 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자료가 없으니 알 길이 없다. 만일,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서와 바울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바울과 같은 자존감과 희망을 함께 누렸을 것이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로마서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강경하고도 단호한 입장으로 선택을 요구한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과 같은 자존감과 희망을 누리게 된다면,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는 바울과 함께 즐겁게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자기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그런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설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롬15:32)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첫 사례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라고 전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시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롬8:29)

로마서의 논지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개방되었다는 데 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있게 마련이다. 사물을 놓고 볼 때에는, 그것을 ‘시제품’이라고 한다. 혹은 ‘초기모델’이라는 표현도 쓴다. 자동차의 초기모델을 발표하는, 모터쇼에 가면 처음으로 보는 모델들이 등장한다. 모터쇼에서는 해당 모델의 첫 작품이 전시된다. 물론, 이 첫 작품들은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자동차이다. 물론, 대량으로 양산하기 전에 만들어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양산체제를 갖춘 다음에는 첫 작품과 동일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다소 변형되어서 생산된다. 물론, 변형을 한다고 해도, 처음 출품한 모델에 기반하여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정도이지, 아주 다른 것이 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모터쇼에 등장한 첫 번째 작품과 같은 분이고, 사도들과 교회들은 그 이후에 양산체제가 갖추어진 다음에 등장한 존재들이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작품에서 그치지 않고,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다.

세상에서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21세기 벽두에 들어서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꼽히는 인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빌게이츠인데, 빌게이츠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2015년에는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첫 딸의 탄생을 축하하며, 52조에 달하는 기부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딸은 세상의 복음에 관한 한 확실한 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갑부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다.

당신에게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배달되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내용에 따르면, 당신이 빌게이츠의 유산상속자로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유산배당금은 약 1조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당신처럼 약 천 여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편지가 배달되었는데, 모두가 약 1조 정도씩 유산 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을 비롯하여 같은 배당금을 받게 될 천 명의 사람들은 이 일을 기뻐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세상에서는 빌게이츠의 아들됨이 당연히 기쁜 소식이다. 게다가 빌게이츠의 아들됨이란 조 단위의 상속까지 포함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한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하나님의 아들됨’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빌게이츠의 아들처럼 상속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전했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삶으로 채워진 나라이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을 누리는 세계이다. 한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이는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삶이며, 사랑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다. 나의 존재가 사

랑하는 존재 그 자체인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며,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의 몫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삶을 기쁜 소식으로 전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 자기의 삶이 온통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가슴 벅차고, 설레며, 행복한 선언이다. 그러나, 이는 세상이 기쁜 소식으로 택한 것, 곧 빌게이츠의 아들됨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울이 전한 기쁜 소식에서 핵심에 놓여있는 선언이다. 그러나, 지난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쁜 소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교회가 복음이랍시고 전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므로, 영원한 형벌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복음이랍시고 전해진 것이었다. 말은 복음(기쁜 소식)인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흥음도 이만저만한 흥음이 아니다. 그리하여, 교회로 물려든 사람들의 대다수는 지옥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는 폭력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벌주는 이미지로 전락했다.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God is love)라는 뜻말을 교회당 안에도 붙이고, 집안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공포감이 자기들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공포감을 조성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말이다.

인간이 공포에 적응하게 되면 어찌되는지 아는가? 요즘에는 긍정심리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마틴셀리그만 교수가 1967년에 행한 실험은 개를 상대로 한 실험이었다. 그는 개를 통한 일련의 자극 실험이 자칫 개를 ‘학습된 무기력’에 빠뜨릴 수 있음을 발견했다. 실험자들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준 다음 전기 자극을 가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개가 회피를 시도하는 회피학습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개는 일련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도 고통스러운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곧 아무리 전기 자극을 가해도 그것을 피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든 어떤 개체가 부정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실험은 히로토 교수에 의해서 전기자극대신 소음을 통한 인간실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인간 역시 개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학습된 무기력’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부려먹는데 사용하는 기술들 중 하나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개처형’이다. 고대로부터 최근 이슬람 수니파의 IS에 이르기까지 공개처형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하여 순응적이게 만든다.

미국에서는 연쇄살인범이 여성들을 납치해서 공포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는데, 많은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살아남은 여성은 아무런 족쇄나 잠금장치가 없었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가축처럼 사육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종교가 공포심을 자극하여 종교적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순응하게 하는 방식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는 인간을 자유케하고, 해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이다.

4세기 이후의 기독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불문하고 확실히 복음을 흥음으로 채워, 공포심으로 사람들을 종교화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도바울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압도적인 비중으로 선언했다. 물론, 인간의 역사는 생명보다는 죽음을 강조하고, 구원보다는 심판을 강조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순응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 점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호소력이 많이 떨어지는 가르침이다. 어리석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가르침이다.

아마도, 첫 교회들의 삶은, 그것이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기초한 삶이라면,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삶이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 너무나 대단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혀 말도 안 되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서 불가능한 삶이기에, 그러한 삶이 구현되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놀라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 이를 마음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구현했다는 것이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땅에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일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러한 일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일 때는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선언은 교회의 자존

감을 형성하는 기초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선언 속에 담긴 전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서부터는 세상과의 구별도 분명해졌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의 정체를 형성하는 근거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하나님 아버지’가 변질되면, 변질된 만큼 교회도 변질되고, 세상과의 구별도 모호해진다.

이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믿음의 기초이며,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핵심이며, 나의 자존감과 희망의 전부를 대표하는 선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로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외양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전혀 다른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맑은가족

맑은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늘빛님을 좋아하여 섬김에 관한 성경구절을 찾고 서로 좋아하는 표현을 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온유님과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사귀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늘빛님에게 감사 표현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담아 선물을 했고 김밥도 사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꿈은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인간을 그 존재만으로 가치있게 보는 인간관은 어떤 시대에도 구현된 적이 없다, 그런 인간관이 적용되는 사회가 있었다면 그 사회에서는 어떤 권력도 성립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신급이 높은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라고 보았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리아님에게 카라님이 기증한 PC를 고쳐서

주겠다, 세뱃돈을 준비하겠다, 설날 빈대떡을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소식가족

즐거운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매일 호흡기도 할 때 유랑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유랑님이 좋아할 오메기떡을 선물했다, 늦게라도 가족들을 보러 온 유랑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립글로즈를 선물했다, 늘 가족들을 챙기고, 믿음의 말로 격려하는 유랑님과 만남이 즐거웠고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좋은 시간을 보내 기쁘다, 즐거운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감사했다, 사랑하는 삶과 말씀으로 사는 즐거운님이 좋다, 희은님이 교회로 사는 일을 귀히 여기고, 성실히 참여하고, 기쁘게 수고하는 것을 보며 내 마음도 함께 기쁘고,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공부하는 모든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되길 원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겠다, 바울의 믿음을 따라, 형제를 그 본질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라보고, 좋아

하겠다, 성령으로 내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소원한다, 매일 성경을 읽고 호흡기도를 할 때 이 목표를 기억하겠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인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교인들을 사랑하는 한 주를 살겠다, 새롬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 맑은님에게 감사카드를 보내겠다, 모퉁이돌님에게 물티슈를 선물하겠다, 주일 식탁을 치우겠다, 세뱃돈을 넉넉히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성실가족

바다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성실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준비했다, 바다님이 가족모임에서 항상 가족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에 감사했다, 가족모임 장소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고마웠다, 바다님을 더욱 사랑하겠다, 바다님을 좋아해서 가지로 야채를 말아서 깨소스를 곁들여 먹는 샐러드를 준비하기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출근했다, 장소와 식사준비로 분주한 바다님에게 선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즐거운 식사시

간을 생각하니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사는 좋은님에게 감사함을 전하였다, 성실님을 좋아해서 대접할 계획을 세웠다, 야사시킴에서 성실님이 좋아하는 우동을 대접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성경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바울은 부활에 대한 실증적인 생활과 내용을 교육했다, 교회 안에서 몸을 움직여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경공부의 유일한 목표이다, 매일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더 잘하며 살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포도가족

아모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보라님을 좋아하기 위해 보라님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안부의 문자를 하며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다, 보라님이 포도가족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며, 믿음의 말로 격려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겠다, 아모님을 좋아해서 브로치를 만들어 선물하고, 일대일 만남을 통해 사귀는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모퉁이돌님을 좋아하기 위해 내사랑 기도를 집중해서 하고, 성경말씀과 감사문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바울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보았다,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길 기도하겠다, 신발장에 신발정리를 하겠다, 주일 예배준비와 만두 만들기를 기쁘게 하겠다, 설날에 교우들과 함께 먹을 한과를 준비하겠다, 식탁가족 간식을 챙기겠다, 편집부 엠티에 간식을 준비하겠다, 한가온님에게 감사선물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화음가족

한남동 이태리 식당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한가온님을 떠올리고 초콜릿과 메추리알 장조림을 만들어서 함께 선물하였다, 드라이플라워를 꽃아서 만든 꽃병을 한가온님의 집에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길이 즐거웠다, 시원님이 교회에서 종종 핸드크림을 빌리곤 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여행길에 핸드크림을 챙겨서 사 왔더니 기분이 좋았다, 불꽃님이 식단을 조절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미와 고등어를 선물하고, 영화관람권도 함께

선물하였다, 푸른님이 여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여행 전에 미리 여권 케이스를 선물하면서, 때에 맞추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유유님이 논문 마무리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격려하고, 해외에서도 교회 스토리와 캐릭터에 참여하여 호흡을 함께 하는 것에 감사했다, 자세한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 주었더니 오히려 내가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내 가슴판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은사가 재능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알았다, 진주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성실님에게 비타민을 선물하겠다, 토요일에 함께 예배준비하는 교우들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주일 설거지를 즐겁게 하겠다, 주일 식탁가족 후식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사랑가족

사랑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사랑님에게 감사편지와 선물을 준비하면서 행복했다, 새가족으로 함께 생활하는 모란님을 이해하고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만났다, 초록님

을 생각하며 아침기도 후 문자를 하고 가족과 함께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더욱 가까워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참 좋다, 일주일간 항상 웃으면서 에너지로 사는 사랑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등 좋은 것 찾기를 해보았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사랑님을 만나러 가니 설레는 마음이 생기고 좋았다, 씨앗님과 오랜만에 사귀는 시간을 갖게 되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씨앗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귀는 통해 기쁨이 더하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나는 가슴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교우들의 추천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실천하며 산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배우며, 교회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며 은사활동을 하겠다, 가족에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드림가족

에스더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에스더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호흡기도를 하고 상품권을 선물했다, 섬김과 격려 주간을 성경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에스더님을 칭찬하는 목

록을 적어보았다, 에스더님이 가족들 모두와 일대일 만남을 하는 것을 격려하며 감사를 전하는 문자를 하고, 사자 캐릭터가 있는 옷을 선물하기 위해 찾아보는 시간이 즐거웠다, 사자는 아니지만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가 있는 옷을 선물했다, 사자 캐릭터를 가지고 몸을 움츠리지 않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며 가족들을 섬기는데 힘을 쏟았다, 일대일 만남을 계획하고 주기 별로 성경말씀을 찾아 일대일 만남을 모두 하게 되면서 기쁘고 감사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살찌워준 에스더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고 한 해 동안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며 비타민을 선물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바울이 가진 꿈을 가지고 믿는 바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에 나의 노력과 실력을 쏟아 부어서 교우들이 나의 추천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으로 채우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스토리는?

맑은가족 나무 하태용



만약 인생에 있어 자기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스토리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그 내용이 있다 한들 매우 극단적이거나 혹은 단순하거나,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스토리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혹은 자기가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 결혼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성공 스토리가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스토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기업 등과 같은 집단적 차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광고의 홍수라는 유례없는 광고 메시지 과잉시대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광고에서조차도 소비자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시켜 제품이 아닌 스토리를 사게 하는 마케팅 전략도 넘쳐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적, 집단적으로 표현되는 스토리는 무언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 멋져 보이지도, 특별하지도 않게 보인다.

오히려 이런 스토리들의 모든 과정들은

무시한 채 결과만 직시하게 되는 획일적인 사고만 팽배하게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크게 의미하는 바가 없다.

우리 교인들은 저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다. 모든 스토리 안에는 그 스토리를 잇는 캐릭터가 존재하듯이 나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은 사랑하는 스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사랑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결과 중심이 아닌 사랑하는 몸으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중심의 스토리를 만들고 사랑하는 몸으로 변하는 완전체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스토리 안에 캐릭터 활동을 통해 나의 몸이 조금씩 사랑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가교회 교인들의 스토리이며 캐릭터 ‘하하 신’으로 살아온 나의 스토리이기도 하다.

‘하하 신’은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난 맑은 가족을 중심으로 시작해 예가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웃음과 행복을 선물하는 캐릭터다. 웃음과 행복을 선물하는 과정에서 받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주는 사람이 더 큰 선물을 받는 것이 ‘하하 신’ 스토리의 핵심이다.

예능인이나 개그맨은 어떤 물리적인 보상을 받고 웃음을 제공하지만, 하하 신으로 살았던 나는 사랑하는 몸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면서 웃음과 행복을 제공한 셈인 삶을 살아온 것이다.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가! 하지만 예가교회의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완성된 스토리는 내 옆 사람의 기쁨이 커지면 나의 사랑은 두 세배로 커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동안 하하 신으로 살면서 사랑하는 실력이 성장하고 있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음을 매번 확인한다.

나에게 이런 특별한 스토리를 완성하고 행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맑은가족, 예가교회 교우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인물열전

아람 류재현

2월의 주인공은 이번에 중학년 3학년이 되는 아람 류재현님입니다.



1. '아람'라는 새 이름은 누가 지었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을햇살을 받아 탐스럽게 열린 열매'라는 순 우리말이 멋있어 제가 지었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섬'이었는데 고립된 느낌이 들어 바꿨습니다.

2. 올해 학생부에서는 어떤 캐릭터이고, 맡은 역할이 있나요?

제 성격강점이 끈기, 열정, 리더십, 학구열이라 '삼장법사'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 삼장법사로 정했습니다. 학생부에서 저는 부총무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학생부도 성경통독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스티커와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너무 배가 고과 힘들었지만, 올해도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3.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미르(김정인)누나에게 토요일 모임 전에 초코에몽과 멘트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 날 따라 누나가 늦게 와 언제 오는지 온 신경이 집중되었고, 미르누나가 도착했을 때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반가웠습니다.

4. 대기명당 아침을 준비해서 형님들과 동생들을 먹이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고

마운 마음이 드는데 어떤 요리가 자신 있나요?

여름엔 국간장에 양념한 미역을 볶아서 미역국을, 겨울에는 주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장김치와 김치보다 많은 냉동삼겹살을 넣어 끓이면 항상 맛있습니다.

5. 이번 대기명당 겨울웍샵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대기명당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 성적순이라 불행한 인생을 지금 행복하게 살고, 학교 공부는 지능발달이 끝난 고2 때 만회하는 것이고, 대기명당에서는 몸공부(먹고, 자고, 싸고)와 글공부(독서, 영어,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여행)와 사회성을 키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 대기명당 프로그램 (스케줄, 영어, 독서, 운동, 수학 등)중 가장 좋아진 것은 무엇인가요?

스케줄은 지난 주 것을 그대로 베껴서 매주 힘들었는데, 중2 때부터는 이번 주의 생활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반영하면서 학교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E900과 프렌즈는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여행에 영어회화가 가능할 것 같아 말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독서는 시간당 60페이지에서 1

20페이지까지 읽게 되었고, 책을 펴서 요약했었는데 요즘엔 목차만 보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싱하면서 발이 빨라져 학교에서 민첩성과 균형감각 테스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수학은 수학의 정석을 시작하면서 어려웠는데 인터넷 강의를 보고 외우면서 술술 잘 풀리니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7. 배낭여행을 매년 가는데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라오스는 여유로운 사람들과 한적함이 좋았고, 캄보디아는 가이드아저씨의 해설을 들으며 유적을 돌아다녔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번 미얀마에서는 보석과 금으로 덮인 불상인 쉐다곤파야를 보고 싶고, 호숫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멍 때리고 앉아있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기명당과 함께 있으면 어디라도 좋고, 무엇을 해도 재미있습니다.

8. 마지막으로 이 소식지를 읽는 교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신년집회를 듣고 '힘담하지 않기'를 계획하고 실천했는데,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해 이 계획을 꼭 실행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보니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가 소식 & 공지

1.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자, 반가운 주일입니다. 주현절기 동안 '서로 사랑하라'하신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 들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 하는 교회로 삽시다.

2. 3월 첫 주부터 매월 첫 주 반가운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또한, 반가운 주일 예배예전은 축약예전으로 진행하며, 예배 후 사랑의 식탁에 앞서서 노래 배우기, 레크레이션, 이미지메이킹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3. 목요기도회는 사순절기 중에는 사순절 집회로 대체됩니다. 다음 목요기도회는 4월 1일입니다.

4. 101반 37기는 4월 15일(금) 저녁 8시에 첫 모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꾸준히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 초청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반 초청장은 인쇄 되는대로 제공하겠습니다.

5. 오늘 사랑의 식탁 후에는 설인사와 율 놀이대회가 있습니다.

6. 사순절기는 2월 10일 성회수요일부터 3월 27일 부활주일 전까지입니다. 사순절기 집회 및 사랑의 금식 안내입니다.

1) 새벽기도회: 2월 16일 화요일 새벽 5 시에 전체집회를 갖고, 이후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새벽 5시에서 7시, 가족모임 별로 한 주씩 돌아가며 참여합니다.

2) 성경통독회: 2월 11일 목요일 저녁 8 시 첫 모임으로 시작하여,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성경통독을 합니다.

3) 목요세족례: 이번 사순절기에는 없습니다.

4) 거룩한 금요일 예배: 3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5) 사랑의 금식: 사순절기에는 사랑의 금식을 하고, 매주 모아 화해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금식표는 게시판에 있으니, 각자 신청하고 실천합니다.

7. 다음 주 예배위원은 맑은, 성실님입니다. 예배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예배의 뜻을 새기며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 인도자그룹과 자원한 교우들이 대접합니다. 2월 봉헌위원은 바다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날짜	성경읽기
월	여호수아기 9장 ~ 여호수아기 14장
화	여호수아기 15장 ~ 여호수아기 22장
수	여호수아기 23장 ~ 사사기 3장
목	사사기 4장 ~ 사사기 8장
금	사사기 9장 ~ 사사기 15장
토	사사기 16장 ~ 사사기 21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